

극단으로 내몰린 '동네 사장님'의 비극

날밤 새우고 일해도 적자... 쌓이는건 한숨과 빚더미 PC방·노래방 업주 등 극심한 불황 속 자살 잇따라

#. 지난 12일 오후 5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한 원룸에서 자영업자 A(3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개업한 지 1년 만에 모든 걸 날려버렸다. 몸도 상하고 이제 남은 건 빚더미뿐이다. 부모님을 잘 돌봐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는 1년 전 안정적이라는 '무기계약직'을 마다하고 광주시 수완지구에 PC방을 개업할 때만 해도 '희망찬 미래'를 기대했다. 젊으니 열심히만 하면 '노동자보다 벌이가 못하다'는 현실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었다.

해남에서 5년간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모아왔던 저축돈에 은행 대출금을 합쳐 PC방 문을 열고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아끼기 위해 일주일에 2~3일 밤을 세워 근무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건 '암울한 짙은 미래'였다. 골목마다 PC방이 넘쳐나 경쟁이

치열했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를 내고 나면 수익을 내기도 쉽지 않았다. A씨는 지인들에게 "(A씨가) 최근 아무리 아껴 써도 은행이자 막기도 바깥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라며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달 29일 새벽 0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한 노래방에서 업주 B(여·54)씨가 독극물(150ml)을 마신 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씨는 3년 전 4000만원의 빚을 내 인수한 노래방 운영이 어려워졌고 매월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숨지기 전 B씨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매월 20만원을 빌려 생계와 영업을 꾸리려 발버둥쳤으나 빚이 턱까지 차 오르면서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

16만명에 이르는 광주지역 자영업자들이 점점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넓지 않은 시장에도, 직장에서 밀려난 50대와 취업조차 안 되는 20대가 자영업에 뛰어들

면서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면서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광주시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광주지역 자영업자는 15만8000명으로, 지난 2012년 14만5000명(평균)보다 1만3000여명이 늘어났다.

광주에 57만3043세대(149만2948명)가 거주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가구는 전체의 27.57%를 차지하는 셈이다.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한데다, 하루 하루 매출에 의존하는 구조로 경기 면역력이 떨어지다보니 불경기 소비자들이 지갑을 조금만 닫아도 금세 충격을 받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경기 둔화가 본격화할 경우, 자영업 몰락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만하다.

당장, 지난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PC방이 있는 수완동(면적 4.61km)만 보더라도 13개의 PC방이 성업 중이다.

노래방 업주였던 B씨의 사업장 주변(우산동·4.54km)에는 무려 34개의 노래방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100m 반경 안에 세탁

소, 슈퍼마켓, 떡집, 미용실 등이 2~3개씩 몰려 있는 상황이다.

끝모를 불황에 동종 업종 간 경쟁도 치열한 탓에 자영업자들의 부채(빚)는 날로 치솟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2년 자영업자구의 대출금액을 2013년 1억16만원으로, 일반 근로자 가구(5169만원)의 2배 규모로 집계했다.

이 같은 열악한 상황에도, 광주에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808곳의 일반음식점이 새로 생겼다. 같은 기간 휴게 음식점(카페 등)도 290여곳이 새로 문을 여는 등 매월 수천여명의 자영업자가 광주라는 좁은 시장에 불바람처럼 뛰어들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매월 신규 개업한 자영업자 수의 80~90%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매월 문을 닫는 등 개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빚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지원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미 05:28 / 해질 19:48 / 맑음 03:47 / 맑음 18:05

다시 무더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은뒤흐림	22/31	보성	맑은뒤흐림	20/29
목포	맑은뒤흐림	20/28	순천	맑은뒤흐림	22/31
여수	맑은뒤흐림	21/27	영광	맑은뒤흐림	21/30
나주	맑은뒤흐림	21/31	진도	맑은뒤흐림	20/29
완도	맑은뒤흐림	20/29	전주	흐린뒤맑음	22/31
구례	맑은뒤흐림	20/32	군산	흐린뒤맑음	22/29
강진	맑은뒤흐림	21/29	남원	흐린뒤맑음	21/30
해남	맑은뒤흐림	20/30	홍산도	맑은뒤흐림	20/26
장성	맑은뒤흐림	20/3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0.5~1.0
남부 앞바다	남~남서 1.5~2.5	남~남서 1.0~2.0
남해 앞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서~서 1.5~2.5	남동~남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서~서 1.5~2.5	남서~서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0:48	06:12
	12:48	18:14
여수	밀물	썰물
	07:50	01:48
	20:27	13:50

◇주간 날씨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	☀	☁	☀	☀	☀	☀
22/32	22/32	22/31	23/29	23/31	23/31	23/30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운동	40
빨래	70

음주 뺑소니 운전엔 홀로 두 딸 키우던 40대女 안타까운 죽음

새벽, 음주 뺑소니 운전이 홀로 두 딸을 키우며 힘겹게 삶의 무게를 버텨온 40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갔다.

광주서부경찰은 13일 음주운전을 하다 40대 여성을 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차량)로 차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전날 새벽 1시2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농성동 지하차도 입구 추선화관 맞은편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여·47)씨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차씨 차량에 들이받힌 뒤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던 액센트(운전자 윤모씨·25)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김씨는 남동생이 운영하던 통닭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던 길에 변을 당했다.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두 딸을 키우며 어렵게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을 벗어났다가 사건 발생 뒤 9시간여만에 출석, 뺑소니를 부인한 차씨를 긴급체포한 뒤 정확한 음주 수치 및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나눔으로 더 맛있는 삼계탕

초복(初伏)인 13일 광주시 북구 문화동주민센터에서 공무원과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저소득층 세대와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할 삼계탕을 포장하고 있다. 문화동주민센터는 이날 삼계탕 50인분을 포장, 25세대에 전달했다.

/최현혜기자 choi@kwangju.co.kr

전세버스 충돌사고 재빠른 후속조치...대형피해 막아

승객 34명을 태운 전세 버스가 다리 교각 표지석을 들이받았지만 운전 기사의 재빠른 후속 조치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13일 오전 10시20분께 담양군 대덕면 갈전교(길이 30m)에서 '광주77사1×××' 전

세 버스가 표지석을 들이받은 뒤 운전 기사는 운전대를 안쪽으로 조정하면서 다리 밑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았다.

운전기사는 버스가 멈춰선 이후에는 앞문이 파손돼 열리지 않자 전면 유리창을 깨고 승객들을 한명씩 대피시켰다.

대부분 고령의 승객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태풍 '찬홈' 소멸... '남카' 북상 주말 영향권

광주·전남 곳곳 침수·낙과 피해

광주·전남지역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됐던 제9호 태풍 '찬홈'(CHAN-HOM)이 13일 소멸했다. 그러나 국지성 호우와 강풍으로 논밭이 침수되고 낙과 피해가 잇따랐다.

제11호 태풍 '남카'(NANGKA)도 이번 주말부터 광주·전남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찬홈'은 13일 오후 6시께 소멸될 때까지 ▲구례 236.5mm ▲영암 191mm ▲보성 186.5mm ▲장흥 171mm ▲여수 78.6mm ▲광주 38.2mm 등의 비를 뿌렸다. 많은 비로 해남(280.7ha)·진도(92ha)·보성(26.2ha) 등 총 농경지 400.9ha가 침수됐으며, 순천(95ha)·곡성(12ha)·보성(1.5ha)·해남(1.5ha) 등에서는 배(108ha)·사과(2ha) 등 모두 110ha의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고추·참깨·옥수수 등 발작물도 강한 돌풍으로 22.9ha에 걸쳐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고 비닐하우스 파손(전파 9동), 어선 5척이 침몰했다.

한편 또 다른 태풍 남카가 북상하면서 이번 주말 광주·전남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카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126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도 강의 중형 태풍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신용카드 주운 50대 "비싼 담배부터 사고 보자"

○... "담배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길바닥에서 우연히 주운 남의 신용카드로 담배 두 보루를 구입한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55)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10시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마트 앞길에서 이모(여·69)씨의 신용카드를 주운 뒤 맞은편 T마트에서 담배 두 보루(시가 9만 원 상당)를 구입하는 등 부정사용한 혐의.

○... 김씨는 T마트에 설치된 CCTV에 이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내 돈 주고 사기에) 담배값이 너무 비싸 주운 카드를 몰래 사용했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 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1장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 1장, 10만원 이하 - 2장, 10만원 이상 -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찰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 3등 - 아이패드(3명)
- * 4등 - 족욕기(10명)
-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의 상세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